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환경선교주일입니다.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교회마당에서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서, 의류,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12:30 교회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6월 수요일은 손성현 전도사가 “골로새서, 나를 깨우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11일부터 22일까지 중구용산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종교개혁지 탐방에 참여합니다.

혹시 고장 난 물건을 집에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고쳐 그 물건의 쓰임을 되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한 구석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흥천 팔열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정복순 문홍일
 6/17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이근식
 오늘설거지봉사 : 한세미 노준우 양상철 박재란
 다음 주 설거지 : 이국노 김민화 이원호 박인혁
 새 교 우 : 백남목(7여) 안경진(5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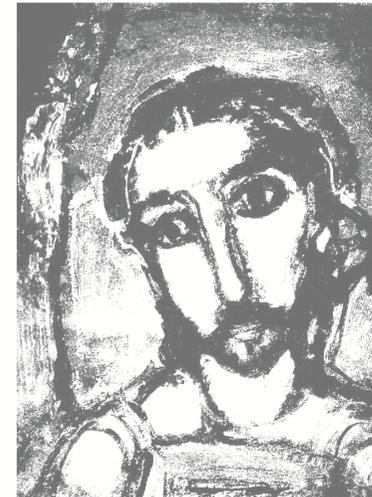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가는 자연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자연을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에 들뜬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한 부모로 모시고 한 형제자매가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말이 거칠어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을 흥기처럼 휘두르는 이,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는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살리는 말, 진실이 담긴 말들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구명자 권미정 김경수 김근종 정옥영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영준 김용태 김박정 오김일 김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애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필근 김현동 김혜영
 문금석 박시내 백묘현 서정순 안종일 정현주 이한림 이한림 이장다
 류정욱 이우엘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지훈 이조명 이조명 이조명
 장영숙 정두리 정복순 정영자 정현숙 조병익 조정연 최다미 최철수
 광권희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상경 홍춘수 무명

감사헌금:

구명자 권미숙 김대규 박경애 김성한 조영순 김종철 김지은 문금석
 문복순 박권동 박옥식 박정숙 박창운 허정윤 이범석 류정욱 이은자
 이해동 맹은선 정광호 정수복 장미란 조현권 박아영 최종원 LJR
 무명11

녹색꿈헌금:

안혜민 임미심 이범춘 이우엘 장원호 박성희

생일감사헌금:

우순덕 허준호

장혜숙	백혜숙	송임희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심소순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이명희	이은혜
장영숙	신영신	문금석	문영숙
정경례	진정숙	조영순	박권희
박홍재	곽권희	배삼순	김현주
박효선	허정윤	오복순	김금순
이순정	김금숙	구성실	권미숙
이형숙	권미숙	이증자	임영선
안홍숙	오현정	정영희	홍춘수
정영선	서정순	최희	백성래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소

김기택

소의 커다란 눈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데
 나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소가 가진 말은 다 눈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말은 눈물처럼 떨어질 듯 그렁그렁 달려 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이 한 움큼씩 뿜어나오도록 물어보지만
 말은 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천만 년 말을 가두어 두고
 그저 끄덕거리고만 있는
 오, 저렇게도 순하고 동그란 감옥이여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소는 여러 번 씹었던 풀줄기를 배에서 꺼내어
 다시 씹어 짓이기고 삼켰다간 또 꺼내어 짓이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땅은 우리 모두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재창조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아멘. 훼손당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맘으로 안타까워할 뿐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영을 의지해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이 본모습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골로새서, 나를 깨우다! / 손성현 기도 : 박옥식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장혜숙 권사	안 현 선생 박영신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김남종 오복순 박효선 강순배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소소한 불편의 실천...내 방식대로 지구 사랑하기

일상을 생태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약간의' 불편과 수고가 따른다. 환경의 날을 맞아 이런 소소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생리대를 사용한다는 김유리 씨, 여러 시도 끝에 전기 콘센트 뽑기를 즐거이 하고 있다는 혜인 씨, 수년째 동네에서 벼룩 장터를 열고 있는 남미영 씨, EM(유용미생물균,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 효소를 열심히 만들어 사용하는 김용희 씨가 그들이다.

그들에게 '왜'냐고? 왜 번거롭고 불편한데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우문(愚問)에 그들은 '불편함도 나쁘지 않다'며, 실은 이미 몸에 익어서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재미'가 있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구가 우리를 품어주는 거대한 어머니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안락함에 대한 인류의 추구가 얼마나 많이 자연을 파괴했는지를. 적어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마음의 안테나다. 세상의 많은 아픔 가운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는 마음 속 안테나가 어떤 주파수에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감수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는 이 안테나는 때로는 일회용품을 쓰는 나의 손을 멈추게 하고, 전기 코드를 뽑게 만들고, 자동차를 타는 대신 두 발로 걷기를 택하게 한다.

자신의 마음 속 안테나와 맞는 소소한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택의 이유는 '당위'가 아니라 '미안함'이다. 즉 '지구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은 이를 불러일으킨 행동을 멈추게 한다. 그런 멈춤을 반복하면 몸에 익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또 '강요받지 않은 내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도 있다. 오래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김승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휴대폰이 멀쩡한데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했다. 광고였다. '이렇게 멋있는데 이거 안 살 거야?' '이런 것 가지고 다니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안 살 거야?'라고 계속 말한다. 기분 나빴다. 내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사라면 사는 사람인가? 기업, 광고가 내 욕구를 좌지우지 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감옥에 갔던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저서 <월든>에서 개인의 저항에 관해 말한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보도록 하자."

편안함과 속도를 지향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찾는 작은 실천은 그 자체가 '저항'이다. 이 같은 혼자만의 행동의 지구를 살리는 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고 싶다'기보다 '그렇게 사는 내가 더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저항이 가져온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 시선의 방향이 바뀐 것, 그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점이라고 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이다.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일회용 컵 쓰지 않기, 전등 안 켜기, 난방비 줄이기,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등 친환경적 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김홍진 신부(서울대교구 축고개성당 주임)는 "실생활에서 하는 작디작은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변화하는 삶의 기본임을 신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은 아무리 말로 해도 관념일 뿐"이라며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소소한 실천에 정답은 없다.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 조금 다른 나의 선택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에 뿌듯해하며 말이다. "지구야,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지구야, 네가 기뻐하니 나도 더불어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